



# 미믹(장송의 프리렌)

최근 수정 시각: 2024-09-23 15:41:45

분류:[장송의 프리렌/설정](#)



## 목차

- 1. 개요
- 2. 특성
- 3. 작중 행적
- 4. 인기
- 5. 여담

## 1. 개요

[장송의 프리렌](#)에서 등장하는 마물.

## 2. 특성

어두워!! 무서워!!(暗いよ!! 怖いよ!!)

미믹에 물린 [프리렌](#)의 비명.

보물 상자로 의태하는 **마물**. 겉보기에는 보통 상자와 구별할 방법이 없어서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<sup>[1]</sup>, 99%의 정확성으로 미믹과 보물 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미크하이트(보물 상자를 **판별**하는 마법)가 있어서 현대에서는 딱히 위협이 되는 마물은 아니다. **1%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다**며 미믹을 건드리는 **모괴짜 마법사**만 빼고... **힘멜** 일행도 몇 번이고 경고했음에도 허구한 날 미믹에게 공격당하는 프리렌을 보며 어이 없어 했고, 특히 **아이젠**은 그때마다 "**이 엘프, 두고 가면 안 돼?**" 라며 짜증낼 정도.

혹시라도 미믹에게 당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. 혼자 있을 경우 미믹의 입 안에 공격마법을 날려 쓰러뜨릴 수 있다. 이 방법의 단점이라면 시전자도 마법에 휘말려서 머리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점. 이런 면에서는 브라이같은 대머리 법사가 유리하다.<sup>[2]</sup> 두 번째로는 안쪽으로 깊숙히 집어넣으면 다시 토해내는 습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.<sup>[3]</sup> 후자가 좀 더 안전하고 쉽지만 뒤에서 밀어줄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.

일반적으로 상단 이미지와 같은 적갈색 상자 형태가 많으나, 황금색 상자나 널빤지를 덧대 만든 허름한 상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.

### 3. 작중 행적

첫 화부터 아이젠이 뒷풀이 축제에서 처음 언급했는데 프리렌이 미믹에게 물려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는 어이 없어해서 그냥 놔두고 가려고 했다고 언급한다. 이후 프리렌이 50년 동안 홀로 여행하고 다닐 무렵에도 미믹에게 물리는 모습이 지나간다.

훗날 페른과 여행을 다닐 시기에다 무턱대고 미믹에게 달려들었다가 물려버린다. 이 당시엔 종종 머리 스타일이 변한 상태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미믹의 안쪽에다가 공격 마법을 쓴 여파로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.

2차 시험의 던전에선 페른이 미크하이트로 미믹임을 확인했으나 프리렌이 1% 가능성 때문에 명대사와 함께 열었다가 물린다. 참고로 앞서 **리히터**가 협동하지 않고 던전에 혼자 들어가는 미숙한 마법사들처럼 미믹에게 물리는 마법사는 이 자리에 없다고 말하고 **덴켄**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맞장구를 쳤는데 곧바로 프리렌이 또 물려서 아악! 어두워! 무서워! 이려고 있었다. ~~덴켄과 리히터가 보면 우리가 어린 녀석에게 졌다니~~ 올 듯중심부에서도 보물더미 속에 미믹이 섞여 있었는데 전제가 합격 선언을 하는 중에 어느 틈엔가 또 물려있었다. 이 미믹은 다른 것보다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으며 애니판에선 아예 황금색에 3마리나 있었다.

여신의 석비 편에서도 두 번이나 미믹에 걸리는 장면이 나와서 힘멜 일행이 어이 없어 한다.

애니메이션 미니 영상에선 3개의 보물상자들 중에 미믹이 숨겨져 있었는데 열기 앞서 운이 좋아지는 마법을 사용해보기로 한다. 그 결과 각각 보물, 마도서가 나왔기에 마지막 1개가 자동적으로 미믹이었지만 프리렌은 마법사로서의 감이 부른다면서 열었다가 물린다.

### 4. 인기



이 안에는 귀중한 마도서가 있어. 마법사로서의 내 감이 그렇게 말해 주는군.



**어두워—!!  
무서워—!!**



## 따라갈 사람을 잘못 고른 걸지도...

서브컬처에서 흔히 등장하는 **미믹**과 다를 바가 없지만, 영락의 왕묘에서 프리렌이 미크하이트로 미믹임을 확인하고도 1%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굳이 열었다가 물려서 호들갑을 떠는 장면이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다. 애니판은 프리렌이 **발버둥**치는 실감나는 묘사 때문에 1화와 오프닝에서 미믹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인기를 끌었다.<sup>[4][5]</sup>

대망의 영락의 왕묘 공략 편에서는 프리렌의 명대사와 달리 **바로 다음 장면에서** 약 5초 동안 미믹에게 물려있다가 호들갑을 떨고 이 모습에 **페른**이 한심하다는 얼굴로 스승 프리렌을 꺼내주는 모습과 앞서 이 모든 모습들을 전부 지켜본 뒤 **젠제**가 어처구니 없어 하는 표정까지 나와서 대박이 났다. 작품 밖에서는 프리렌을 삼킨 미믹 봉제 인형이 발매되는가 하면, 애니화·연재 100화 기념 인기투표에서는 무려 **3위**를 차지했다.<sup>[6]</sup> 2차 인기투표에서는 **10위**를 차지했는데<sup>👉#</sup>, 1인당 1캐릭터당 1표로 집계할 경우에는 4위로 올라간다고 한다.<sup>👉#</sup>

## 5. 여담

- 프리렌은 미믹에게 삼켜지면 매번 평소 언동과는 다르게 "어두워! 무서워!"라며 호들갑을 떠는데, 이 대사 자체는 **같은 잡지**에 연재되었던 **시골별 녀석들의 멘도 슈타로**의 **폐쇄공포증** 개그가 유래다. 참고로 작중 프리렌이 이토록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장면은 힘멜 사후 눈물을 흘리는 씬과 미믹썬 단 둘뿐. **힘멜과 동급**
- 팬덤에선 프리렌이나 프리렌 복제체 대책으로 자주 언급되지만, 전부 농담이지 진담은 아니다. 상술했듯 프리렌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서 미믹에서 나올 수 있고<sup>[7]</sup>, 애초에 전투 중에 보물상자를 열어보겠다고 바보처럼 걸려들 리도 없으니 프리렌 복제체 대책으로도 못 쓴다.
- C103**에선 뭔가 기묘하게 재현한 미믹 코스프레가 등장하였다.<sup>👉#</sup>
- 인기에 힘입은 것인지 미믹에 갇힌 프리렌 피규어가 공식 상품으로 등장했다.<sup>👉#</sup> 심지어 미믹 컨셉의 파우치, 카드지갑, 티셔츠도 등장했다.<sup>👉#</sup>

<sup>[1]</sup> 이빨이 있는 것과는 달리 물려도 별다른 외상은 없고 침 범벅만 되지만 고집어 당겨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잡혀버린다. 프리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으면서 페른에게 잠시 당기는 걸 멈추라고 할 정도.

<sup>[2]</sup> 이 방식으로 빠져나온 프리렌은 이 여파로 **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해졌다**. 페른의 회상에서 가끔 머리 스타일이 변해서 돌아온 것이 이 때문.

<sup>[3]</sup> 이는 실제로 **맹수**에게 물렸을 때의 대처법이다. 물린 신체를 빼내려고 당기면 뜯어져 버리지만, 반대로 안으로 밀어넣으면 뜯어지지 않으니 별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작중에서도 해당 방법을 듣고 페른이 "(미믹이) 뭐 **개**인가요?"라고 어이 없어 한다.

<sup>[4]</sup> 원작은 1화에서 미믹 장면이 워낙 지나가듯 그려져서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. 이 때 미믹이 나온 줄 모르고 1급 마법사 시험 편에서 처음 나온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.

<sup>[5]</sup> 애니판 기준 15화의 A파트에서도 과거 회상으로 미믹이 나왔었다.

<sup>[6]</sup> 온라인 투표였고 중복 투표가 가능한 방식이라 **눈에 띄는 캐릭터가 장난식 물표를 받기 쉬운 상황**이긴 했다. 미믹이 유독 높았지만 다른 괴상한 후보들도 높은 순위를 달성했다. 23위에 '터무니 없이 커다란 햄버그', 2